



유럽 증시, 기술적 반등 시도하며 혼조세

유럽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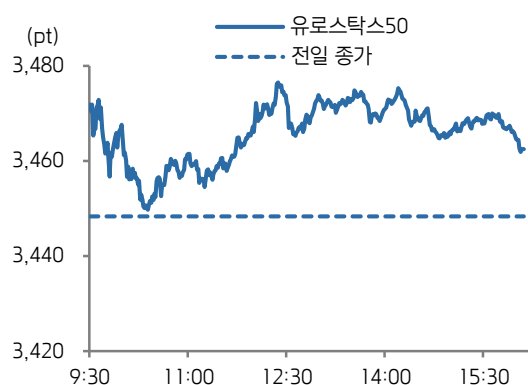
4(월)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 유럽증시는 독일 수출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전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업종 강세 및 낙폭과대 인식 속 기술적 반등 시도하며 혼조세로 마감 (유로 STOXX +0.12%, 프랑스 CAC40 +0.4%, 독일 DAX30 -0.31%, 영국 FTSE100 +0.89%).

독일 5월 수출은 전월 대비 -0.5%(예상치 0.7%, 전월치 4.4%) 하락을 기록, 수입은 전월대비 2.7%(예상치 0.8%, 전월치 3.5%) 증가. 무역적자 10 억달러(예상치 16 억달러 흑자, 전월치 31 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991 년만에 처음으로 적자 기록. 에너지 가격 증가 및 중국의 코로나 19 봉쇄로 인한 수출 둔화 등에 기인한다고 밝힘.

유럽 7월 섀프티 투자자기대기수는 -26.4(예상치 -20.0, 전월치 -15.8)를 기록하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 한편, 유럽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6.3%(예상치 36.6%, 전월치 37.2%), 전월대비로는 0.7%(예상치 0.9%, 전월치 1.2%) 증가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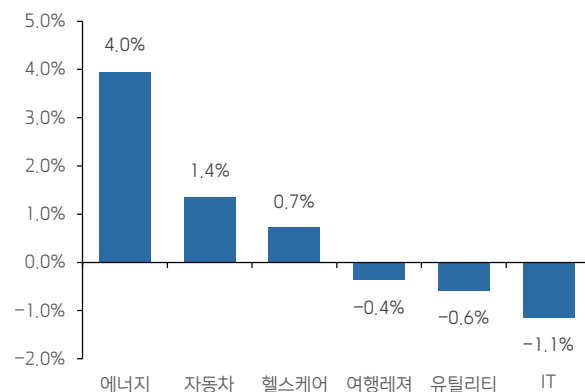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일부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미 상원의원은 대중관세가 미국 가정과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며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중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EUROSTOXX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25.33	+1.06%	USD/KRW	1,296.76	-0.03%
NASDAQ	11,127.84	+0.9%	달러 지수	105.18	+0.04%
다우	31,097.26	+1.05%	EUR/USD	1.04	+0%
VIX	27.53	+3.11%	USD/CNH	6.69	+0.01%
러셀 2000	1,727.76	+1.16%	USD/JPY	135.69	+0.05%
필라. 반도체	2,458.46	-3.8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289.43	+1.01%	국고채 3년	3.420	-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75	-2bp
Eurostoxx50	3,452.42	+0.12%	미국 국채 2년	2.833	+0bp
MSCI 전세계 지수	600.71	+0.27%	미국 국채 10년	2.880	+0bp
MSCI DM 지수	2,559.95	+0.5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92.84	-0.78%	WTI	108.43	+2.52%
MSCI 한국 ETF	57.40	-1.36%	금	1808.3	+0.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5.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거래일 급락세를 연출했던 반도체 소부장 등 일부 종목군들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여부 2. 중국의 6월 서비스업 PMI 결과 및 그에 따른 아시아 증시 반응 3.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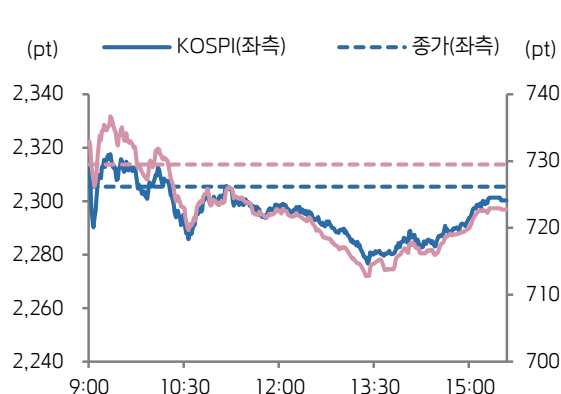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독일의 5월 무역수지(-10억유로, 예상 +27억유로)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나 유로존의 7월 투자자 신뢰지수(-26.4, 예상 -19.9) 쇼크에서 재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상황. 13일(수) 발표 예정인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헤드라인물가 컨센서스 8.8%YoY, 5월 8.6%), 이처럼 인플레이션 이슈는 상당기간 동안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생활 물가 급등, 연준의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6월 28일 Gallup 서베이에서도 미국인들의 약 3분의 2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름값 부담으로 이전보다 운전을 덜하고 있다는 답변(응답률 62%)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같은 수요 부진의 영향은 최근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주중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대중 관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물론 본 관문인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레벨 다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때 실패했던 1차 관문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6~7월 데이터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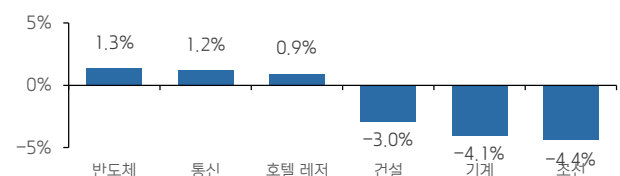
선거래일 미 ISM 제조업 부진 충격, 특정 테마 재료 소멸 인식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코스피 -0.2%, 코스닥 -0.9%)는 금일에도 제한적인 추가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반도체 소부장 등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매수세 유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6월 락다운 해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6월 서비스업 PMI 결과에 따른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방향성에 영향 받을 전망. 또 평소라면 수출 지표를 제외한 여타 국내 주요 지표에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도 기업들의 비용, 내수 소비, 한은의 금리인상 강도에 민감한 상태인 만큼 6월 국내 소비자물가(컨센 5.9%)가 6%대로 나올 시에는 이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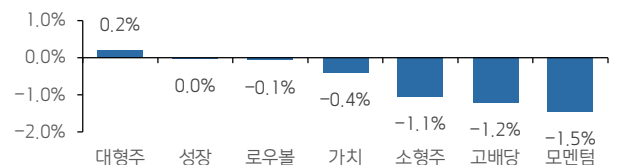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